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기전은 비핵·평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두 달여가 지났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이면서 중재자인 우리의 당초 목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 체제의 일정표를 앞당기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채택이 불발됨으로써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늘 희망적(wishful)인 것은 아니다. 잘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지난 하노이 회담은 결과물 없이 종료되었지만 북미 양측의 주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우리는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였다. 결론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 발전에 기여한 점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북미 간 충돌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합의한 점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협의 틀을 만든 것은 주요한 성과이다. 체육, 문화, 종교 등 사회 문화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 선언이 담긴 의미와 내용을 감안할 때 남북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장전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다시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정세가 유리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남북 관계에 속도조절을 시도해 왔고 통미봉남을 통해 우리와의 대화를 배제하려 하였다. 반면 우리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를 병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두 가지 트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상황을 관리해 왔다.

북한이 앞으로 남-북-미 협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통미봉남으로는 안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 있는 경제 협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서 남북 관계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 차원의 만남을 통해 다음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지금 협상장 밖에서 날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협상 실무를 관장하는 실무 대표들끼리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양측 실무 대표들이 앞으로 만날 수 없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를 십분 활용하여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하는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조급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과거 북핵 협상 30년 동안 우리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수한 협상의 과정 속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 30년이 흘렀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가 그랬고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그랬다. 시기가 늘어지게 되면 상수보다는 변수가 많아진다.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비핵화 협상은 포괄적인 합의와 압축적인 단계 이행을 통해 일거에 끝내야 한다. 협상 시간이 지연되면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당사국들의 리더십이 바뀐다. 협상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명분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협상의 동력이 약화된다.

냉전 해체는 개혁 개방론자인 고르바초프가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은 동독 변혁기에 콜 총리가 주변국들을 설득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살려 나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면서 대선 때까지 핵 동결 국면을 끌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시한을 설정해 놓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종용하고 있다.

올해가 지금까지나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향배를 가를 중요한 타이밍이다. 올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에 따른 신뢰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전에 대비할 만큼 타이밍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남북미 모두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뛰어 넘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5·27의 위상 드높이자

천 정 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매년 5월 27일이 되면 옛 전남도청 앞에선 최후 항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가 열린다. 80년 그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전두환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에 맞서다 산화한 시민군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지지만, 이 부활제 만큼은 여전히 쓸쓸하고 아프다.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들 몇몇이 모여 술 잔을 부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행사의 거의 전부다.

지난해 그 자리에 다녀온 후 5·27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지가 드러난 5·17 비상계엄 확대와 다음날 이어진 광주에서의 잔인한 진압, 그리고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와 헬기 소사에도 광주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신군부에 대한 두려움이 거센 분노로 바뀌자 계엄군은 도청을 시민들에 내주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곧 계엄군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예고됐지만 시민군들은 먼 훗날 민주주의의 부활을 기약하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 그날 세상 가장 명예로운 죽음으로 도청 일대에서 수습된 시신만 17구였다. 실제로는 더 많은 목숨이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졌을 것이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는 양심들과 이를 막기 위한 신군부의 대치는 80년대를 관통하였고, 전두환 신군부는 권좌에 오른 순간부터 시시각각 파멸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는 집권 직후부터 광주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에 사복 형사들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했다.

그럼에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항은 거세져 1983년 전두환 정권은 유화 조치를 단행해야 했다. 84년엔 망월묘역에 대한 봉쇄가 풀려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이 망월동을 찾게 되었고, 85년부터는 '5·18 광주민중혁명 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직됐다. 6월 항쟁을 앞두고 마련된 87년의 5·18 기념 행사는 전두환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위한 '출정 전야'에 다름 아니었다. 5월 7일부터 수천 명의 대학생이 광주에서 시작한 87년 5월 투쟁은 전국으로 번져 5월 27일까지 근 20일간 30여 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모 집회가 벌어졌다.

이렇듯 광주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행했고 기념행사의 체계와 내용도 시간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5·27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추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의 5·18은 여러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이면 5·18 40주년이기에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 명령, 성폭력, 민간인 학살 등 최종적인 진상 규명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두환과 그 후예를 자임하는 자들에 의해 더 이상 5·18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천명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도 이뤄져야 한다. 그 서훈의 첫 번째는 최후 항전의 희생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5·27은 광주 항쟁의 완성이자 '부활'이다.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신군부에 굴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다. 올해 '5·27 부활제'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그 특별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장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광주시에서도 '부활제'의 의미에 걸맞게, 시민군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성대히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종교칼럼

그들은 왜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황 성 호
영암 신북성당 주임 신부

빛이 길어졌다. 계절이 바뀌는 중이다. 나는 가끔 새벽녘에 성당 입구에 자리한 정자각에 앉아 있곤 한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도 제법 견딜 만하다. 성당 마당의 화려했던 벚꽃은 눈을 흩뿌리듯 철쭉 위에 내렸다. 계주봉을 이어받은 듯 철쭉들의 연한 연두색 잎 사이에서 붉은 꽃봉오리들이 머리를 살짝 내밀더니, 이제는 활짝 피었다.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태양이 월출산 봉우리를 넘어 기웃거린다.

문득 나는 '떠올라라! 태양아! 그리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게나.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게!'하며 기도한다. 빛으로 시작된 하루는 모든 것을 깨우는 힘이 있고, 새로움을 선사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맞는 새로운 날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선물 같아 감사함을 느낀다. 어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다. 물질적 시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나의 천박함으로 새날을 살고 싶지 않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진 편협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선물과도 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며, 좀 더 받아들이며, 좀 더 손해보며, 좀 더 희생하며 '바보'라는 별명을 지니셨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이 진실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비겁함은 새로운 날을 선물 받은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루카 5, 38) 그렇지 않고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술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터져버리게 된다. 이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의 삶들이 자꾸 오늘의 새 삶을 방해한다. 누렸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았던 달콤한 칭찬과 언사들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은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일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앞날만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내어놓는 논리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오기를 부릴 뿐이다. 자기편에 서지 않는 자는 모두 빨갱이, 종북이며, 좌파라고까지 떠들어댄다. 이 이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가!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과격한 단어로 목청을 높이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못된 심술을 부리기까지 한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은 성숙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은 무지몽매하기에 자신들의 말만 들어야 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갇혀야 하며,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구태의연함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많은 나이, 남성 우월주의,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들에게서 몽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차별이라는 벽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소유한 것을 나누고 싶지도 않다. 특권 의식을 누가 쉽게 버리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못된 심술을 부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시대의 희생양은 그들의 이념과 불합리한 논리로 계속 양산한다. 결국 그들은 비겁하다. 이 얼마나 슬프고 불안해하는 존재들인가?

한계성을 지니면서 몽니를 일삼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빛은 새날을 밝힌다. 희생양이 필요해 예수를 죽였던 이들, 예수를 묻었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비어 있는 무덤과 빛을 체험하고 놀라워하였다. 빛은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나 예수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는 두려울 뿐이다.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개념 없는 논리로 이념들을 만들어 희생양을 양산한다. 그러니 그들의 몽니가 끝이 없는 것이다. 빛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날! 왜 그들은 이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社 說

취임 2년 대통령 공약 사업 빠짐없이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광주·전남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오는 10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 점검한 결과 한전공대 설립, 스마트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수소 산업 등 굵직한 사업과 현안이 본궤도에 올랐거나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35개(광주 24·전남 11)인데, 이들 사업의 국고 반영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이명박 정부(40%)와 박근혜 정부(10%)의 임기말 공약 이행률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현안인 광주~나주 간 광역 철도망 구축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 지원, 전장부품 산업기반 조성, CT 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사업 등은 올해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목포 크루즈항 개발 등 환황해권 관광 휴양 거점 육성 등 8개 사업이 정부 부처 이행 계획에 빠져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철학의 구현을 위해서 광주·전남의 누락된 공약 사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정부 재정 지원과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배제된 탓에 타 시도가 구축한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의 대통령 공약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 진전이 어려운 현안이다.

정부는 보수 일각의 반대에도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낙후한 지역에 숨통을 열어 주었다. 앞으로도 그러한 과감한 지역 배려 정책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역 현안을 두루 챙기고 살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도 넘은 부모들의 패륜 범죄 어찌해야 하나

광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및 유기 사건은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 범죄를 숨기기 위해 보복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친모가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A양은 수학여행을 이틀 앞두고 무안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목 졸려 살해된 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30대 가장인 범인은 의붓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친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친모는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남편의 해코지가 두려워 말릴 수 없었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공모를 인정했다.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및 학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이혼한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엄마가 집에 불을 질러 5개월 된 딸과 두 살과 네 살짜리 아들 등 3남매를 죽게 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됐다. 2017년엔 광양에서 20대 부부가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에선 친엄마의 묵인 아래 동거남이 다섯 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실명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 부모들의 패륜 범죄가 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범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인의 경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폭행이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사회적 보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부모들의 패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크루이프 더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물으면 대부분 펠레와 마라도나를 꼽는다. 월드컵에서의 화려한 성적 덕분이다. 그러나 선수와 감독 경력 그리고 축구 역사에 미친 영향까지 평가한다면, 단언컨대 '축구화를 신은 피타고라스' 요한 크루이프를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

물론 크루이프가 선수로서 월드컵 우승컵을 들지 못했고, 감독으로서는 월드컵에 출전하지도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루이프 턴'이라는 기술을 창시한 테크니션이자 유러피언컵 3회 우승과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최고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를 세 차례 차지한 레전드다. 무엇보다 선수 시절 시도한 '토탈 사커'의 그라운드 지휘자였고 감독이 되어 이를 완성함으로써 현대 축구 전술의 초석을 다진 혁명가였다. 또한 자본을 앞세워 특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갈락티코'에 맞서 유소년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수많은 스타들을 길러냈다.

지난 1일과 2일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승리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는 크루이프의 땀과 정신이 깃든 팀이다. 그는 두 곳 모두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바 있다. 아약스 유니폼에 새겨진 세 개의 별은 1970년대 크루이프가 유러피언컵에서 이룬 3연패의 빛나는 역사를 말해 준다.

아약스는 2016년 크루이프가 별세하자 홈구장 명칭을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바꿔 클럽 역사상 최고의 스타에 헌정했다. 이곳에서 다음 주에 열릴 2차전은 토트넘에 힘겨운 일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전문가들은 돌아온 손흥민이 아약스의 뒷공간을 장악한다면 1차전과는 달리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크루이프는 한 번에 공을 터치하는 능력을 최고급 기술로 본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티키타카와 점유율 축구로 바르셀로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챔스 결승전에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가 맞붙는 '크루이프 더비' 성사 여부다. 바르셀로나는 리버풀을 3대0으로 꺾어 결승 티켓을 이미 예약한 상태. 문제는 아약스다. 그리고 해답은 흥미롭게도 손흥민이 쥐고 있다.

/유제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